

# 한·중과학기술협력의 발전과정 및 과제

## 목 차

1. 개요
2. 한중과학기술협력의 발전과정 및 성과
3. 주요선진국의 대중과학기술협력현황
4. 한중과학기술협력방향 및 과제

2011.9.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병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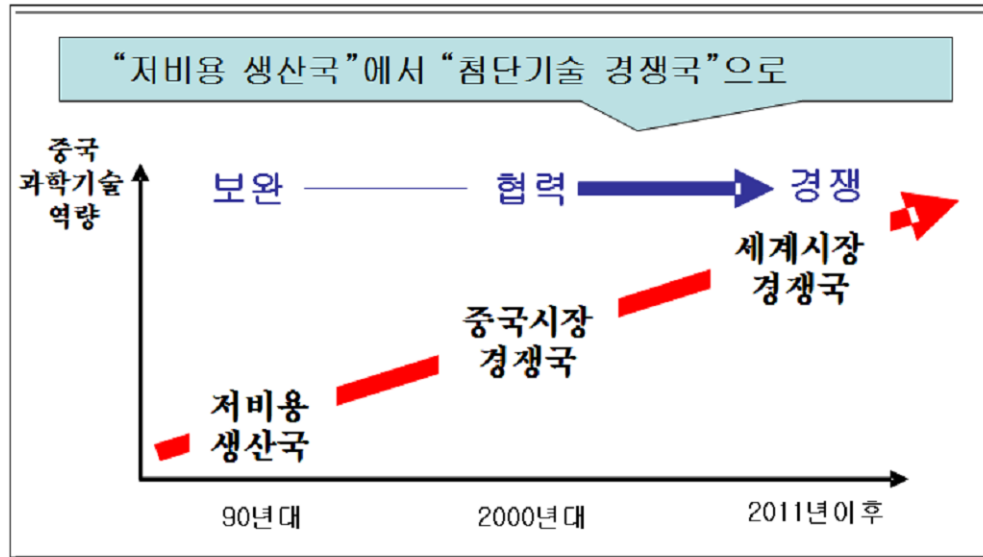
# 한·중과학기술협력의 발전과정 및 과제

## I. 배경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0년간 중국은 정치, 경제, 국방, 사회, 문화,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 강국으로 부상
  - 중국 일본을 제치고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
    - GDP규모(2010년 IMF경상US달러 기준) : 미국 14.66조 달러(1위), 중국 5.88조 달러(2위), 일본 5.46조 달러(3위), 한국 1.01조 달러(15위)
  - 중국 R&D경비가 2006년에 3,003억 위안이었던 것이 2010년에 6,980억 위안으로 4년 새에 2.3배로 증가하여 세계 4위로 부상
- 중국은 그 동안 “세계공장”, “세계시장”이라는 개념에서 “세계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변화 시도
  - 외교전략 : 韜光養晦(80년대) ⇨ 和平崛起(90년대) ⇨ 和諧世界
    - ※ 韜光養晦(도광양회-재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림), 和平崛起(화평굴기-평화적으로 우뚝 일어섬), 和諧世界(화해세계-조화롭게 세계에 어울림)
  - 과학기술 : 第1生産力(80년대) ⇨ 科教興國(90년대) ⇨ 人才誘致
    - ※ 不分膚色 不分國籍 不惜代價 인재유치에 피부색, 국적을 가리지 말고 어떤 대가도 아까워 말라(중국 11차 5개년 계획 국제과학기술협력실시 강요)
- 저비용 생산국, 소비시장으로의 중국이라는 접근방식에서 세계시장의 경쟁자로서 중국을 인식하고 변화하는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협력 추구
  - 한중수교 초기에는 1인당 GDP가 한국 1만 달러 vs 중국 100 달러 수준으로 경제,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한국을 배우자는 분위기속에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적 협력관계로 출발함
  - 그러나 20년간의 중국의 급성장을 통한 환경변화속에서 과거의 지원적 협력이 아닌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장기적 안목의 상호호혜 협력으로 전환하고

“기술협력파트너로서의 중국”으로 인식 전환되고 있음

<그림1> 중국의 과학기술역량의 변화



□ 최근 중국 과학기술정책 및 과학기술협력정책의 변화 동향

- 2006년에 국무원이 발표한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2006~2020)”을 통하여 중국의 과학기술역량을 대폭 강화해 2030년에는 과학기술을 통하여 중국전체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2050년에 중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천명함
- 2010년에는 중국과학원이 30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의 연구결과로서 중국과학기술로드맵인 총 15권으로 구성된 “2050년 국가과학기술 발전 전략연구보고서” 발간
- 중국 과기부 국제협력사의 활동도 강화되어 최근 2년 동안 국제과학기술협력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지원을 계속 확대함(지원경비 2억 위안 ⇒ 10억 위안).
-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유치하던 외국기업투자도 “기술획득을 위한 선별 투자”로 전환되고 있음

## II. 한·중과학기술협력의 발전과정 및 성과

### 1. 한·중과학기술협정체결

#### 가. 협정의 경과

-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1992년 양국 수교 이전부터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사례가 있었음, 1986년 아시안게임 및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축적된 전산관리기술·도핑기술·기상기술지원 등을 1990년 북경아시안게임에 지원하기로 합의
- 수교 이전인 1992년 초 한국 과학기술처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 장관회담을 개최하면서 양국간 과학기술협력활동이 본격화되었으며, 양국간 과학기술협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로서 1992년 9월 30일 「한·중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서명하고 같은 해 10월 30일부터 발효함
- 협정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며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이후 한 나라가 6개월 전에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5년씩 계속하여 유효하다고 규정하여 현재까지 양국간의 과학기술협력의 근거로 작용함

#### 나. 협정의 주요 내용

- 양국은 각기 자국법령에 따라 호혜평등의 기초하에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장려·증진하며, 협약에서 가리키는 협력은 과학자·연구원·기술요원 및 전문가의 교류, 과학 및 기술적 성격의 연구결과·기자재·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과학기술분야에서의 공동세미나, 심포지엄, 기타 회의 및 훈련사업 개최,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공동연구사업 수행 등으로 규정함
- 또한 양국은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을 조정·촉진하기 위하여 양국정부가 지정한 대표로 구성되는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이 공동위원회는 매년 1회씩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기로 함
- 그리고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은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연구소·대학 및 기업체간에 계획 및 사업의 조건, 추진절차, 재정적 합의 및 기타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시행약정의 체결을 장려하기로 하며,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 수행을 위해 자국 영토안에 체류하는 상대방 국가의 국민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2. 한·중과학기술협력의 발전과정

- 「한·중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주요 근간으로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실무회의 개최 등 다양한 과학기술협력활동이 전개되었으며, 10차에 걸쳐 〈과학기술장관회담〉을 진행하고 과학기술협력 전반, 청년과학자 교환연수 및 해양과학협력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 아울러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과학기술인력 및 정보의 교류를 위한 수십건에 이르는 개별 협력 약정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함

<표1> 한·중과학기술협력의 발전과정

	1990년대	2000년대	2011년 이후
협력의 필요성	-상호협력분위기 조성 -공공관심분야 파악 -협력기초정보 수집	-양국실질이익추구 -구체적협력사업도출 -체계적 정보 조사	-동반자적 협력추구 -네트워크구축/관리 -유효정보분석/확산
협력의 주체	-정부, 공공기관 중심	-대학, 기업으로 확대	-중소벤처활성화
협력분야	-기초 및 기반분야	-개발, 첨단분야 확산	-기업화, 기술이전
협력방법	-인력교류 -공동세미나	-상호기술조사단교환 -공동연구, 센터	-협력네트워크 구축 -현지거점인프라
정보공유	-Offline -Closed System	-Offline -일방성	-On-Offline -쌍방향성

- 양국간 과학기술협력사업을 주도할 협력기관으로 한·중 과학기술협력센터가 북경과 서울에 각각 설립<sup>1)</sup>되어 양국의 공동연구사업, 중·단기 인력교류사업, 국제학술회의 및 다양한 형태의 공동세미나 등을 지원하고 양국

간 과학기술 정보 및 인력교류 등 협력창구로의 역할을 담당함

### 3. 협력분야별 발전과정 및 성과

#### 가. 정부간 과학기술협력

- 정부간 과학기술협력은 한중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틀 안에서 진행되었으며 지난 20년간 10여차례의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순조롭게 추진
-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는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양국 과학기술협력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며, 국장회의는 공동위원회 합의사항별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향을 논의

<표2> 한·중·(일) 과학기술협력회의채널 운영현황

회의명	우리측 수석대표	상대측 수석대표	개최주기
한·중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교육과기부 장관	중국과기부 부장	격년 (교대)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교육과기부 차관	중국국가원자능기구 주임	매년 (교대)
한·중 과학기술국장급 회의	교육과기부 국제협력국장	중국과기부 국제합작사 사장	격년 (교대)
한·중 우주기술분야 회의	교육과기부 거대과학지원관	국가항천국 외사사 부국장	수시
한·중·일 과학기술장관 회의	교육과기부 장관	중국과기부 부장 일본문부과학성 장관	격년
한·중·일 과학기술협력국장 회의	교육과기부 국제협력국장	중국과기부 국제합작사 사장 일본문부과학성 국제협력담당국장	격년

- 1993년 제1차 한·중 과학기술공동위원회(장관급) 개최를 최초로 2009년5월 제10차 공동위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실무급 회의로는 1999년부터

1) 우리나라의 경우 1992년 11월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북경사무소(현재 이춘근소장 재직)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측의 경우 한국주재 중국대사관내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3명의 중국 과학기술부직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는 과학기술국장 회의가 개최되어 2010년에는 제6차 과학기술국장회의가 중국 심양에서 개최됨

- 2009년 5월 제10차 공동위의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한·중 공동연구센터 선정, 한·중 공동연구프로그램 추진, 한·중 신진과학자교류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추진, 기초과학 및 산업화 협력연구 촉진을 추진하기로 합의
- 중국 과기부 아비처의 교류협력 대상 국가가 92개인데, 연속 10회 개최는 중국측입장에서 대단한 실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중국과기부의 업무구조가 횡선, 종선으로 구성되어 있어 양국 간의 과학기술협력 촉진에 매우 유리함.
  - 종선: 국무원⇒과기부⇒성/시 과기청⇒ 현 과기국⇒ 향 과기관공실
  - 횡선: 과기부-농업부 및 발전개혁위원회 등 부/위(部/委) 과기사

### <표3> 한·중 과학기술공동위원회(장관급) 개최실적

구분	일자/장소	수석대표	
		한국	중국
제1차	'93.11/북경	김시중 장관	송 건 주임
제2차	'94.11/서울	한영성 차관	혜영정 부주임
제3차	'95.10/북경	정근모 장관	송 건 주임
제4차	'96.11/서울	구본영 장관	송 건 주임
제5차	'98.12/북경	강창희 장관	주여란 부장
제6차	'00.11/서울	한정길 차관	마송덕 부부장
제7차	'02.12/북경	이승구 차관	마송덕 부부장
제8차	'05.7/서울	오 명 부총리	쉬관화 부장
제9차	'07.7/북경	김우식 부총리	쉬관화 부장
제10차	'09.5/서울	안병만 장관	완 강 부장

#### 나. 공동연구프로젝트

-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과기부는 국제과학기술협력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음(지원경비 2억 위안 ⇒ 10억 위안)
- 한·중 공동연구의 경우 2009년부터는 에너지, 신소재 및 나노소재, 생

물기술, 전통의약 분야 등에 대해 양국이 공동의 선정과정을 거쳐 2010년 6개의 연구과제를 선정·지원하고 있음

- 한국 측은 대 중국 공동연구프로젝트의 예산이 계속 감소하여 금액기준을 2011년기준 5-6억원 수준에 불과하며 공동연구과제수도 과거 20개에서 2009년에 10개 2010년에는 6개과제로 축소됨

#### 다. 과학기술조사단 상호파견

- 한·중 양국의 대표적 과학기술협력 사업으로는 양국의 우수 과학기술, 성공적 과학기술 정책 및 R&D 동향 등에 대한 현지 조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진행해 온 한·중 과학기술조사단은 연4회 조사단을 상호 교환 파견해 왔으나 2007년부터는 연 6회로 확대 운영
- '92년부터 20년간 에너지 고효율화, 원자력 안전, 기후·해양 환경변화 예측, 태양광 및 태양전지 기술 분야 등 과학기술분야를 망라하여 총 70회 367명(10년 31명)을 파견하여 중국현지의 기술에 대해 체험, 학습하고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기회로 활용

#### 라. 공동연구센터 설립 프로그램

- 중국과는 신소재, 생명공학, 광기술분야의 센터 운영을 통해 희토류분리 정제 및 응용기술협력, 식물자원교류 등 연구사업, 이동형 X-ray 진단장치 등 중국보유기술 판매·알선 등의 성과를 거둠
- 한중수교이후 현재까지 9개의 한중공동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설립초기에는 비교적 활발하게 협력활동이 진행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의 예산지원 축소 등으로 현재는 대부분의 공동연구센터의 활동이 지지부진한 수준임
- 특히 양국간 운영메커니즘의 차이로 공동운영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sup>2)</sup>

2) 한국은 3년 지원비를 공동연구센터에 계속 지급하는데 반하여, 중국의 경우 매년 경쟁을 통하여 공동연구센터를 선정함, 공동연구센터의 중국측은 매년 국제협력계획 프로젝트로 과제를 신청해야 하며 3년간에 과제를 하나도 수행하지 않은 경우 공동연구센터 자격을 취소하고 재 선정절차에 들어감



**<표4> 대 중국 공동협력센터 설치·운영 현황**

센터명	주관기관	설립일	소재지
과학기술협력센터	KIST	'03.9	북경
나노기술공동연구센터	나노종합팹센터/ 국가나노센터	'05.7	대전/북경
도플러라이더공동연구센터	원자력(연)/안휘연구소	'06.8	대전/안휘성
레이저핵융합공동연구센터	원자력(연)/ 공정물리연구원	'06.8	대전/사천성
천연약물공동연구센터	KIST강릉/호북성 동제의하원, 성도 중의약대학	'06.8	강릉/호북성 , 사천성
대기과학공동연구센터	서울대/북경대	'93.10	서울/북경
신소재공동연구센터	기계(연)/ 유색금속연구총원	'97.7	대전/북경
생명공학공동연구센터	생명(연)/ 상해식물생태(연)	'97.10	대전/상해
광기술공동연구센터	원자력(연)/상해광학정 밀기계(연)	'99.2	대전/상해

#### 마. 한·중청년과학자교류프로그램

- 한·중청년과학자교류프로그램은 한중 양국의 청년과학자들에게 교류, 협력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연구재단과 중국 인사부 박사 후기금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한중인력교류프로그램으로 1994년부터 2010년까지 225명의 과학자들을 초청·파견하는 실적을 기록함
- 현재 한·중 양국 경제발전과 과학기술환경변화에 따라 파견시기·비용 부담·관리방식 등에 대한 양해각서 개정을 위한 양국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1년 중 양국 협의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양해각서가 체결할 예정임<sup>3)</sup>

#### 바. 원자력분야 협력

- 원자력분야에 있어서는 1994년 한·중 원자력협정이 체결된 이래 2000

3) 한국은 최초 모든 경비 부담에서 각 50% 부담 제안, 상기 프로그램과 비슷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KOICA프로그램은 거의 중지 상태에 처하고 있음.

년부터 제1차 원자력공동위원회(차관급)가 개최되었으며, 2010년에 제9차 공동위원회가 중국에서 개최

- 원자력공동위원회에서는 한·중 원자력협정의 효과적인 이행,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확대 및 협력 촉진을 위한 공동연구, 원자력 안전 등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을 추진해옴

### Ⅲ. 주요 선진국의 대(對)중국 과학기술협력 현황

#### 1. 독일

- 독일은 중국과의 교육 및 과학기술협력을 최초로 시도한 서구국가로서 1978년 10월 9일에 양국간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함, 1~2년 간격으로 양국 정부간에 공동위원회 개최
- 정부부처간의 협력은 물론, 독일연구재단(DFG),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헬름홀츠 연구소연합 등 다층적 차원에서 협력 및 교류 사업을 진행함
- 과학기술의 경우 독일연구재단(DFG)이나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는 기초과학 및 기술을 중심으로, 프라운호퍼 연구협회와 헬름홀츠 연구소연합 등은 산업기술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수행
- 특히 중국 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와 독일연구재단(DFG)의 협력사업은 국제적 협력사업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베이징에 공동으로 “중덕과학센터(中德科學中心)”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덕과학센터의 2009년도 독일측 예산은 2천 5백만 위안 (270만 유로: 한화 약 43억원)
- 독일 “교육연구부(BMBF)”는 2009~2010년을 “중국의 해”로 결정하여 대대적 행사를 벌이며 과학자, 학생들간의 교류활동을 전개함

#### 2. 프랑스

- 프랑스는 독일과 달리 대사관 안에 과학기술처(과기처)를 두어 과학과 기술에 관한 특별업무(special service)를 수행함
- 북경주재 프랑스 대사관의 경우 과기처 최고 책임자인 부참관은 밑에 총 23명의 직원(북경 16명, 상하이 2명, 우한 2명, 광둥 3명)을 두고 있음

- 과기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원칙을 ‘과학자들의 기동성 향상’ (mobility of the people)에 두고 있으며 “과학자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함.
- 2007년 11월 프랑스 재정부 장관과 중국 과기부 장관은 중국 첨단산업단지과 프랑스 경쟁력클러스터간 “혁신클러스터 협력강화”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함
- 중국에서는 이전의 PFCC 프로그램과 박사 및 박사후 과정 협력 프로그램이 합쳐져서 2010년 12월에 “Cai Yuanbei”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유망한 양국의 젊은 과학도 40명 정도가 3일간 회의록 없이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하는 Frontier Science 프로그램이 2011년에 도입 예정

### 3. 미국

- 1979년 1월 31일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와 중국 지도자 덩 샤오핑이 과학기술에 대한 공동연구와 교류를 내용으로 하는 “중미 과학기술협력 협정”에 서명
- 2010년 10월 14일, 중국 과기부 장관 완강과 미국대통령 과학기술 위원장 존 홀드렌 박사의 주재하에 “중미 혁신 회의”가 중미간 전략 및 경제회의의 개최함, 토의주제는 혁신 정책, 혁신 정책 실행을 위한 최적의 사례들, 혁신주도의 산업적 의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 등임
- 과학기술성이 따로 없는 미국의 경우 다양하고 다층적인 공동연구 및 협력이 연방정부 또는 백악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짐
  - 미국국립해양 및 대기청과 중국 국립 해양청의 공동작업반 설립 및 연구 활동 (1997년부터 현재까지)
  - 미국질병센터와 중국 베이징 의과대학의 소아질병에 관한 공동연구 (1991년부터 현재까지)
  - 해양 및 기후에 관한 정보교환으로 보다 정확한 기상예보 성취 (1989년부터 현재까지)
  - 베이징 전자-양전자 가속기는 중국과 미국간의 소립자론 공동연구의 모범적 성공사례로 꼽힘. 미국측은 중국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게 지원함으로써 중국-미국 과학자 사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믿음. (1984

년부터 현재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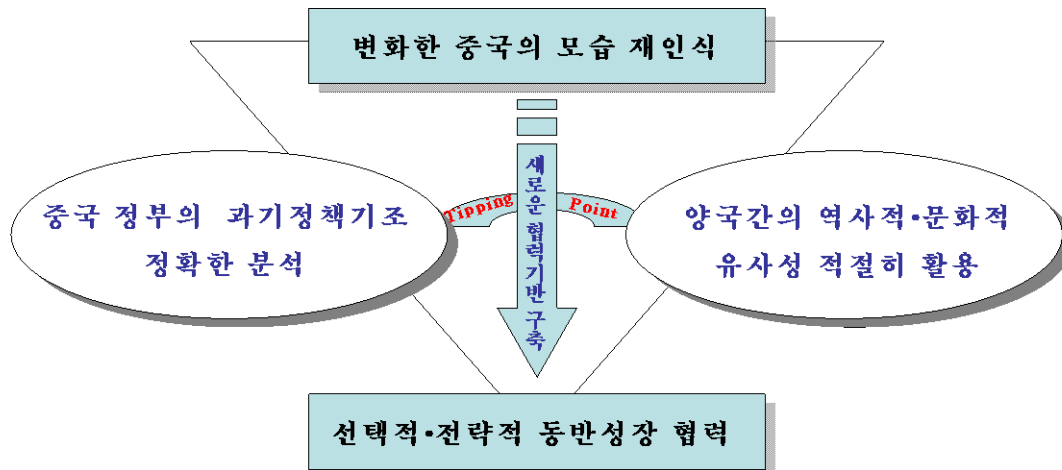
- 중국의 질병센터와 미국의 CDC 사이에 A/H1N1 인플루엔자 창월에 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교환 및 효율적인 인적교류 (2009)
- 아르곤 국립연구소, 미국환경청, 중국과학원원인 미국 및 중국의 대학들과의 협력하에 공기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강화. 이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맞추어 선수 및 관람객을 위한 조치로 베이징 공무원들에의 업무협조 (2008)
-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에 물새(오리, 거위 등)들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 지질학연구소가 위성탐사를 이용해 조사 (2007)
- HIV/AIDS 예방을 위한 중국연구발전을 위해 미국국립보건연구소가 중국 질병예방센터에 5년간 약 1500만 달러 지원 (2002-2007). 공동 퇴치사업.
- 1998년의 핵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중미 협정 이후 기초연구의 성과와 함께 중국내 미국 기업의 상업·경제적 성과를 가져옴
- 1983년에 미국 지질학연구소와 중국 지진관리청이 공동으로 중국전자지진망응 설립(1987년부터 가동)하여 중국의 지진에 관한 연구 지원 (1983년부터 현재까지)
- 미국 국립 해양 및 대기청이 중국 양자강의 범람과 해양의 퇴적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여 홍수관리와 선박항해에 관한 정보 교환 (198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 4. 외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

- 선진국들의 경우,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 인프라 구축 및 전략에 중점을 둠
- 기초과학, 산업기술, 기타 분야별로 다양한 전담 기구를 두어 다각도에서 협력사업을 수행함
- 정부기관간의 협력, 연구재단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사업은 전체적인 조율 속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짐.
- 선진국의 경우 중국과의 과학기술협력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IV. 한·중과학기술협력방향 및 과제

### 1. 기본방향



- 변화하는 중국의 현황과 정부의 정책기조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전략을 세우고, 한·중 양국이 갖는 역사적·문화적 유사성을 적절히 활용하는 동반성장(Win-Win) 협력 추구
- 양국간 과학기술협력도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효율과 원칙, 조화”의 새로운 협력방안 모색

### 2. 한중과학기술협력 추진전략

#### 가. 기본에 충실한 협력

-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원칙에 충실한 Know-why 중심 협력으로 전환
- 형식적·정형적 지원에서 사안에 맞는 실질적·비정형적 지원으로 전환

#### 나. 변화하는 환경과 양국의 과학기술 수요에 부응

- 변화속에 기회와 위협을 분석·신속히 대응하는 3V<sup>4)</sup> 실행시스템 구축

4) 가시성(Visibility), 가변성(Variability), 신속성(Velocity)에 집중

- 지식(Tech-knowledge)기반 정보화 환경에 걸맞는 5S<sup>5)</sup> 관리 도입

#### 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협력

- 함께 만드는 NEP Based<sup>6)</sup> 정보창출과 지원
- 새로운 환경에 변화한 경쟁자 및 성장파트너로서의 협력방향 모색
- 기술/지식 경쟁, Long-Tail시장 탐색 등 당면현안의 경쟁자로서의 기술협력

### 3. 한·중과학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현안과제

#### 가. 한중과학기술협력에 대한 거버넌스

- 2008년 5월에 서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맺는데 합의하는 내용의 공동성명 발표.
- 양국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구체적인 전략적 협력관계의 내용을 자문하기로 결정.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전문가 공동연구위원회'(이하 '한중전문가공동위') 탄생.
- 그러나 '한중전문가공동위'가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음에도 한중과학기술협력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며 실질적인 대중국 과학기술 협력정책의 부재 상태
- 특히 MB정부 출범이후 미국중심의 외교전략 추진으로 정부의 대 중국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관심이 크게 후퇴함
- 교과부, 국과위와 '한중전문가공동연구위원회'간의 공조체계를 가짐으로써 대중국 정책의 큰 틀안에서 양국간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나. 한·중과학기술협력예산의 확대 및 안정적 확보

- 현재 우리나라의 한중협력예산의 규모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1개 연구과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대중국 과학기술협력의 방향 및

5) Specialization, Standardization, Simplification, Scientification, Systemization

6) Needs Oriented, Entrepreneurship & Professionalism Based Assistant

장기전략에 기반한 획기적인 정부 예산지원이 요구됨.

- 반면 중국의 지속적인 예산증액으로 한국과 중국의 입장이 완전히 역전된 상태이며 심지어 한국측의 예산축소가 중국측의 예산증액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 안병만 장관은 5월 22일(금) 중국 과학기술부 만강(万钢 WAN Gang) 장관과 서울(신라호텔)에서 제10차 한중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중 간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예산에 반영된 근거를 찾지 못함)

#### **다. 중국 과학기술 관련정보의 수집 분석 확산**

-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중국과학기술 및 정책정보업무를 단순정보의 제공차원에서 핵심정책이슈 및 맞춤형 심층기술분석 정보 중심으로 전환
- 정보의 내용 및 형식면에 있어 한국내 고객들에게 시사성이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필요시 주문형 분석정보제공체제 구축

#### **라. 공동연구센터 및 프로젝트에 재점검 및 활성화**

- 행사위주, 홍보성 협력사업추진을 지향하고 내실있고 실질적인 협력인프라 및 사업추진으로 전환
- 중국측에서는 1992년 한중수교이후 많은 다수의 MOUs, 다수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여왔으나 현재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실정임

#### **마. 중국 과학기술 인력 네트워크 유지 및 관리**

- 수교후 20년간 인력교류 및 조사단파견 등을 통하여 구축한 이룩한 양국간 인적 물적 네트워크의 지속적 유지 및 활용을 위한 D/B구축 및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 중국은 각 주와 도시가 서로 다른 나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상이한 구조 및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측의 니즈에 근거한 중점전략지역 또는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선정 지원